

서울 서초 반포 래미안 퍼스트지

반포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반포'가 매머드급 단지로 재탄생하면서 단지 내 조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글 | 강문성 부장 (kita@kita.or.kr)

사진 | photographer_김경민 (buline@naver.com)



반포래미안 단지특징은 “도심 속 한국의 절경”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물, 빛, 바람, 구름, 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파트 속에 담아 내는 명품 조경을 지향하고 있다.

1,000여평의 규모로 생물 서식환경 조성, 4계절 가동 시스템을 갖춘 생태연못, 폭포와 이끼 등을 통하여 금강산과 설악산을 재현한 금강산 만물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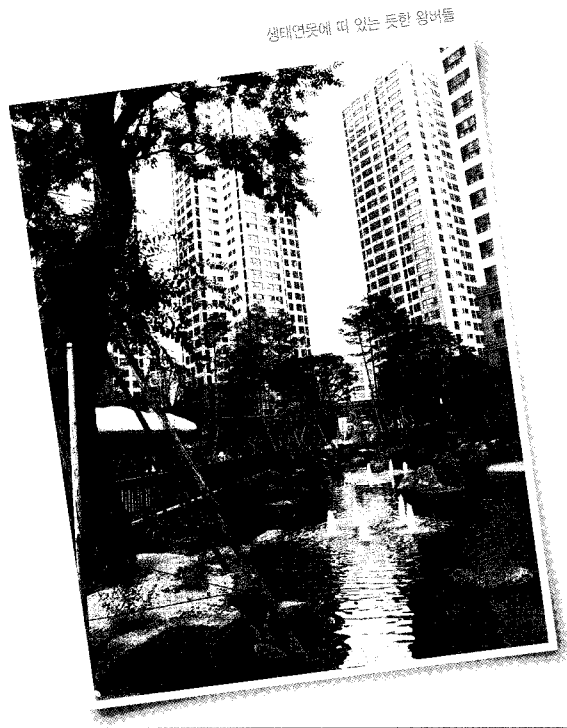
수물지구(댐건설지역) 내 수목을 재생(자연자원의 보존)하여 마을 수호신, 입주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1000년 느티나무 등의 공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삼자연이라 불리는 생태연못은 수공간의 경우 동절기 4~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동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물고기의 산란이라는 동기부여와 흐르는 계곡물은 얼지 않는 원리를 활용하여 사계절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생태연못으로 조성 되었다. 기존에 시공해 왔던 친환경 방수 공법과 수변식물 식재 등의 기법에서 한단계 진화하여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유기물까지 걸러 낼 수 있는 마이크로 필터와 살균 기능을 강화 시킨 전기장 장치 사용하여 대규모 수공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 해결하였으며 1,000여평이 넘는 생태연못과 272미터에 이르는 생태계류는 365일 단지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게 하였고 대형수목인 왕버들 등을 연못 안에 식재하여 평면적인 연못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갈대군락을 구성하여 늦가을과 초겨울 까지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절경이 모여 있는 금강산 중에서도 최고의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만물상 구역과 설악산의 형제바위를 축경화하여 표현해 내고 폭포수, 소나무(분재형), 향나무(분재형), 지피식물, 이끼등을 아름답게 배치하여 마치 하나의 명품조경으로 탄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1000년의 세월을 거쳐 온 느티나무 노목을 단지 내 공간에 이식하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만의 특색으로 기억될 랜드마크이자 사람들의 감성을 깨워 주고 단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상징이 되고 있었으며 직경 40미터에 이르는 원형 잔디광장은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전통적인 비움의 공간을 모티브로 다양한 가족단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밖에 테크상단 주제정원 중 하나인 천암원으로 ‘千’의 다른 의미인 ‘초목이 무성한’이란 의미를 차용하여 ‘초본과 어우러진 암석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적 기암괴석과 고산건조지대의 식생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중





심안산을 형성시킨 숲면적경



수령이 오래된 팽나무



주거장 주변에 느티나무

후하고도 신비스러운 괴석의 분위기와 형형색색의 초화류가 펼치는 이채로운 장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실수와 먹을 수 있는 산나물들로 구성되어 전체 테마정원 중 식물들을 통한 체험적 공간을 연출하고 친환경 웰빙공간으로서 교육적인 효과와 더불어 오감을 자극하는 기분 좋은 체험을 통해 어른들에게 동심을 유발하고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서 4계절 풍요로운 휴식을 제공하는 재원을 조성하였다.

반포 래미안 단지 규모는 전체면적 13만㎡, 조경면적 5만7천㎡, 조경공사비용 140억(조경식재 80억, 조경시설물 6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수목은 주로 대형목이 많이 식재되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아파트 주출입구와 동과 동 사이 주요 공간에는 대형 소나무(H6.0~8.0×W2.0~3.0×R50~80) 등을 식재하였고 하부식재로 영산홍, 자산홍, 회향목과 지피식물을 식재하였으며, 단지 내 가로수로는 느티나무(H4.0~4.5×R15~30), 계수나무(H5.0×B15~25), 은행나무(H6.0~7.0×B25~40), 왕벚나무(H4.0~4.5×B15~25), 목련(H7.0×R50, 3~5지 다간), 중국단풍(H6.0~7.0×R20~40) 등이 대형목으로 식재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들메나무(H10.0×R60), 주엽나무(H7.0×R50), 왕버들(H10.0×R80) 등의 대형수목이 돋보였으며 강조식재로 칠엽수(H10.0×R50), 팽나무(H8.0×R70), 느티나무(H8.0×R80), 계수나무(H10.0×B70) 등의 대형목이 주로 사용되었다.

주요 수종으로는 교목류-구상나무, 대나무, 섬잣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 전나무, 주목, 측백, 감나무, 계수나무, 꽃사과, 느티나무, 다릅나무, 편오크, 매죽나무, 매화나무, 모감주나무, 복자기, 산딸나무, 산수유, 수양벚나무, 이팝나무, 청단풍, 자엽자두, 참빗살나무, 살구나무, 회화나무 등이며 관목류-낙상홍, 남천, 털팽나무, 수수꽃다리, 명자나무, 물철쭉, 백당나무, 병꽃나무, 보리수나무, 불두화, 산수국, 앵도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초본, 지피류-백문동, 고사리, 관중, 꽃창포, 노랑어리연, 노루오줌, 두메부추, 머위, 당귀, 무늬개나리 등이 사용되었다.

이곳 반포 래미안은 건물의 고층화에 어울리는 식재패턴으로 주변공간을 최대한 대형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친자연환경의 느낌을 조성하였고 금강산, 설악산등의 인공적인 특징적요소들이 결합함과 동시에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생산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것은 조경수목이 대형화 되고 있고 다간으로 수형을 조성한 대형수목, 수고가 높게 형성되고 균식으로 재배된 수목도 주변건물과 조화 있게 배치하여 균식 또는 단식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잘 쓰이지 않는 수목이지만 특화될 수 있는 랜드마크식재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수목 등이라 할 것이다. 🌳



생태연못으로 통하는 계류



소나무, 녹수형과 소나무 반송



생태연못의 조경